



## 팔레스타인의 두 가지 비극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6년 6월

6월 9일 금요일 오후, 가자의 라알리아 가족은 해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 57분에서 5시 10분 사이 폭탄 하나가 터졌습니다. 이제 막 10대에 접어든 예쁜 딸 오다를 남겨둔 채 7명의 가족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한 아랍 리포터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그 곳에서 죽은 가족들의 시체를 붙잡고 충격 속에 절규하고 있는 오다의 사진들을 촬영했습니다. 폭발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인 것으로 즉각 추정되었습니다. 오다의 사진들은 알 자지라 TV 방송을 통해 전 아랍 지역에 계속해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폭발에 대한 이스라엘 측 최초의 반응은 자신들의 공격과 연관 지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미르 페레스는 퇴역 장군 요세 펠레드의 지도 아예 제3차 수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자를 목표로 하는 공격은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스는 이스라엘에 전면적인 보복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라알리아 가족의 참사가 있는 후 4일 동안 80발이 넘는 카함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쏘았으며, 대부분은 스테로트 마을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과 학생들은, 공교롭게도 스테로트에 살고 있는 페레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3일 화요일 아침, 이스라엘 정보부는 '이슬람 생전 기구' 에서 일하는 3명이 탄 팔레스타인 측 차량이 이스라엘에 쏘 '그라드' 미사일을 싣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라드는 굉장히 강력한 미사일로, 그에 비하면 카팜은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트에 발사되어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11 시 40 분, 이스라엘 공군이 그 차량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세 명의 테러리스트가 죽었습니다. 어나 그라드 미사일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60 초 후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차량을 목표로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 60 초 동안 팔레스타인 차량이 공격을 당한 고속도로 건너편에 사는 무그라비 가족은 무슨 일인지 살피러 뛰어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많은 구경꾼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 중 8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라알리아 가족의 사건 수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발사된 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사 5 분 후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 병원에서 치료 중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 한 명이 그 파편의 금속이 이스라엘 미사일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미 세계 언론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위기는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살해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발사에도 불구하고, 그라드 미사일은 아무 탈없이 수거되어 '생전 기구' 일군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다음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 이스라엘 군은 미사일 발사 및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활동에 관여한 자에게 즉각 공격을 가한다.
2. 공무 중에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이스라엘은 무장 대립 중에 무죄하게 사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한다.
4. 이스라엘은 언제든 팔레스타인이 테러 공격을 중단할 의사를 보일 때 평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5. 이스라엘 국방성은 부상을 입거나 재산의 손실을 입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법적 보상에 대한 양소에 열려 있다.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비극의 결과였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통근 기차가 아데라 부근 베이트 쏘슈아 완승역 철로에 서있던 소영 트럭을 받아 탈선하여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놓고 볼 때 참으로 짜그마한 이 분쟁의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혼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영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아마스의 영향으로 사역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만 있다고 합니다.

번역: 고병연